



2026. 6. 11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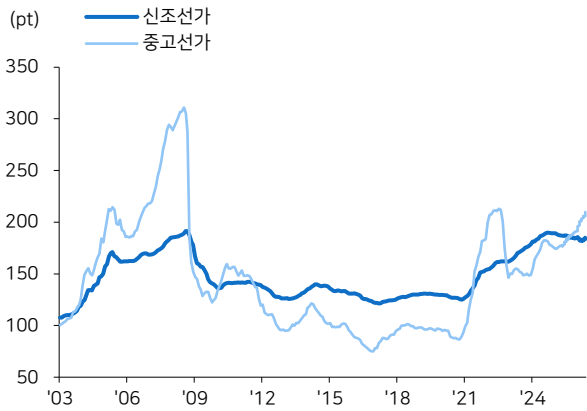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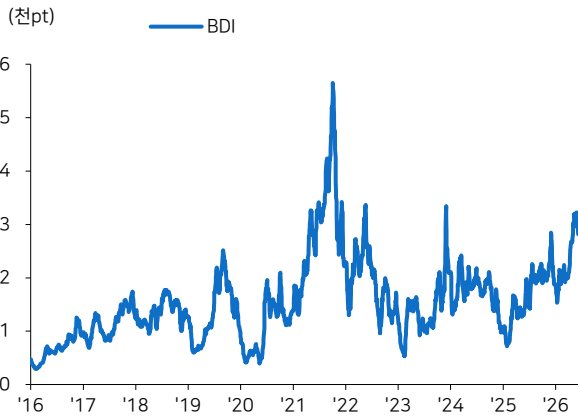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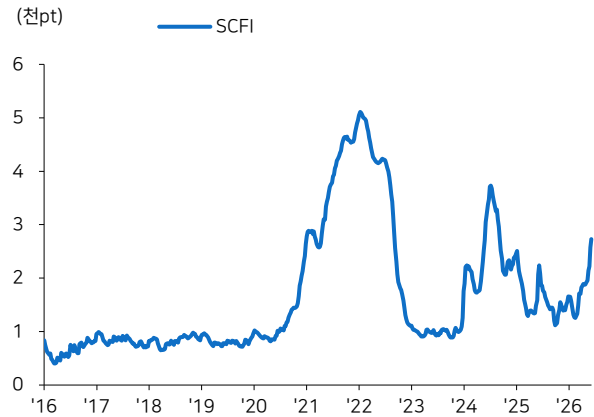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3.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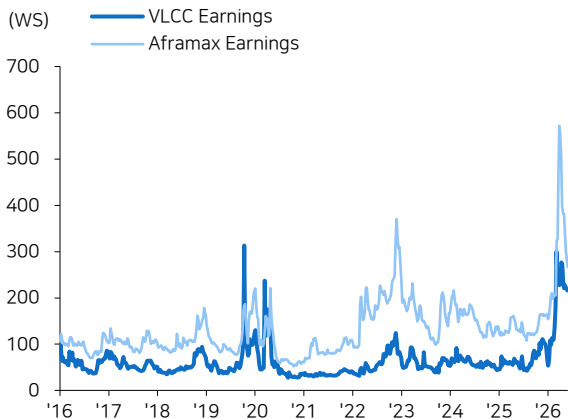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18.0p (-9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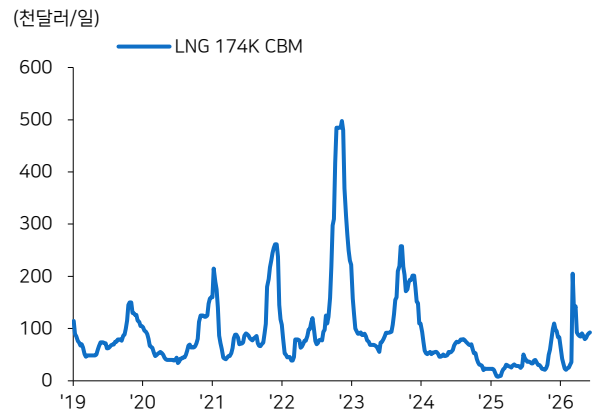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726.5(+154.8 WoW)



VLCC Spot Rate 216.2WS (-2.3p WoW)



LNG Spot 운임 92.8천달러 (+1.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amsung Heavy Industries in direct talks for two more FLNG vessels (Upstream) <https://zrr.kr/HjaC0Z>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첫 FLNG 프로젝트인 Delfin LNG의 첫 번째 FLNG에 대한 29억 달러 규모의 EPCI 계약을 공식 체결한 데 이어, 후속 선박인 2호선과 3호선의 공급을 위한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이번 1호선 수주를 시작으로 북미 지역 LNG 밸류체인 구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으로 기대되며, Delfin 측이 올해 말까지 후속 호선의 최종투자결정(FID)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전해짐. Delfin LNG 프로젝트의 총 생산 능력은 연간 1,320만 톤으로 각 FLNG는 연간 440만 톤 규모로 건조될 예정이며, 50억 달러가 투입되는 초기 개발 단계의 첫 LNG 생산 시점은 오는 2030년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짐.

HD 현대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협상 급물살...상선군함 MRO 플랫폼 구축 (더구루) <https://zrr.kr/lediZV>

HD현대중공업이 모로코 국립항만청이 발주한 카사블랑카 조선소의 30년 개발·운영권 확보를 위해 모로코 정부와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짐. 총투자비 3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 조선소는 약 21만㎡ 부지에 드라이도크와 리프팅 플랫폼 등을 갖추게 되며, HD현대중공업은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 Somagec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탈리아 및 중국·스페인 등 경쟁 그룹을 제치고 가장 유력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짐. 회사는 카사블랑카 조선소를 상선과 군함 정비가 모두 가능한 아프리카 최대 MRO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며,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은 이번 모로코 거점 확보를 통해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 대응하는 글로벌 생산·정비 네트워크 이원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전망으로 보도됨.

HD 현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사격...현지 대학과 R&D 협력 (연합뉴스) <https://zrr.kr/YlrwwF>

HD현대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와 첨단 디지털 및 AI 기반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과 차세대 함정 구조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차세대 구축함·무인 함정·잠수함 연구개발, 친환경 첨단 소재 개발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고 전해짐.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HD현대오일뱅크, HD건설기계 등 그룹 차원의 수주 지원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알려짐.

공정위,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연합뉴스) <https://zrr.kr/oq57jt>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늦장 발급(하도급법 위반)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보도됨. 동의의결은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기업이 제안한 시정방안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지난해 12월 신청했다고 전해짐. 삼성중공업은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 동반 지원금 인상, 희망 공제 사업 및 공동 근로복지 기금 증액 등 113억 원 규모의 방안과 함께 올해 1월 지급한 290억 원 규모의 하청 성과급 추가를 제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Two-horse race for New Zealand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oZVm7F>

뉴질랜드 정부가 가스 매장량 급감과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Taranaki 항구에 10억 뉴질랜드 달러(약 6억 200만 달러) 규모의 LNG 수입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하고, 최종 후보 2개 사를 선정해 제안요청서를 발급했다고 보도됨. 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해상 가스 탐사 금지 정책 등으로 천연가스 예비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향후 10년간 8개의 가스전이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수입 터미널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짐. 올해 안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까지 터미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원 마련은 전기 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전력 업계가 비용을 책임지는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New gas pipeline ready to feed US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Dul3A7>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 Sempra Infrastructure가 미국 걸프만 지역의 가스 수송 및 수출을 위한 Port Arthur Pipeline Louisiana Connector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됨. 약 10억 달러가 투입된 이번 신설 배관망은 현재 건설 중인 Port Arthur LNG Phase 1 액화·수출 시설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완공 시 연간 최대 1,300만 톤의 LNG 처리 능력을 지원한다고 전해짐. 또한 이번 파이프라인은 Sempra Infrastructure가 남서부 루이지애나 에너지 회랑에 보유한 Gillis Hub 파이프라인 시스템 및 건설 중인 가스 저장 시설과 연계되어, 걸프 해안 전역의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가스 공급 능력을 강화할 전망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